

전주국제영화제, 시네필전주 상영작 공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공모

올해의 게스트 시네필, 호주 영화 평론가 '에이드리언 마틴' 전주 방문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시네필전주 상영작과 올해의 게스트 시네필을 전격 공개했다. 앞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전쟁 선정작을 비롯해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비경쟁 선정작을 공개한 바 있다.

시네필전주 섹션은 영화적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네필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고전영화, 역사와 장르, 창작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교차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화 역사의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작품을 초청한다.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시네필전주는 주한호주 대사관을 비롯한 허버드필름아카이브(HFA), 브라질 시네마테카 카피톨리우(Cinemateca Capit6lio) 등 세계 우수 기관과 협력한다.

지난 2023년 첫선을 선보인 게스트 시네필은 영화 복원 및 보존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을 초빙하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네필전주의 미니 섹션이다. 올해는 호주의 저명한 영화 평론가인 에이드리언 마틴을 초청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국가의 주요 영화 잡지에 기고해왔으며, 디스포지티브 개념을 정립해 미장센 중심의 영화 이론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게스트 시네필 섹션에서는 에이드리언 마틴이 "또 다른 호주 영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라는 주제로 선정된 7편의 호주 영화를

상영한다. 주류를 넘어 실험적인 영화들을 제작하는 독립영화감독 빌 머슬러스와 마고 내시, 커린 캔트릴의 작품들이다.

에이드리언 마틴이 전주에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이후 16년 만이다. 그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게스트 시네필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라며 "2009년에 이 멋진 영화제에 처음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편집한 차이밍량 행사 연작에 기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의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 제작 현장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며 전주국제영화제 참석에 대한 설렘을 표했다.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호주문화주간을 맞이해 선정된 영화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호주 영화를 엮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된 활기차면서도 우울한 뮤지컬인 빌 머슬러 감독의 신작 <스털링의 내 사랑>(2023)과 백인 가족과 원주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마고 내시 감독의 <무소유>(1994), 커린 캔트릴 감독의 <이 생의 몸>(1984)을 포함해 총 7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히 16mm 필름으로 관객과 만나는 <이 생의 몸>은 대부분 정적인 정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커린 캔트릴 감독이 직접 더

빙했다.

이 밖에도 브라질 시네마테카 카피톨리우 레오나르두 볼림 프로그래머의 주도로 복원한 <하나는 적고 둘은 좋아>(1970)와 브라질의 유명 가수 카에타누 벨로즈가 잠시 출연하는 <새로운 물결>(1983)도 상영된다. 브라질의 70년대와 80년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브라질 시네마의 중요한 순간을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영화제의 좋은 동반자 허버드필름아카이브의 헤이든 게스트 원장도 올해 다시 시네필전주를 찾는다. 허버드필름아카이브와 전주국제영화제는 3년째 35mm 필름상영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헤이든 게스트 원장은 영화 속에서 동물과 자연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보여주는 영화를 선정했다. 레오나르두 볼림, 헤이든 게스트, 에이드리언 마틴은 영화 상영 후 강연을 통해 관객과 '영화로의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종전과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맞이해 40년 전 베를린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클로드 란즈만의 <쇼아>(1985) 복원판과 원작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은 기욤 리보의 신작 다큐멘터리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2025)를 함께 상영한다. 2018년에 작고한 란즈만은 올해로 100세가 되었다. 그의 걸작은 "과거를 잊은 사람은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여전히 입증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내달 7일까지 2개 분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4월 7일까지 '2025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의 참여 단체와 기관을 공모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은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주체적인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 5천만 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단체·기관별 1개 사업만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의 '꿈다락 문화학교', △성인 대상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개 분야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1건 내외의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해 문화예술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공모 유형 개편, △문화예술교육사 가산점 도입, △평가체계 구축

과 우수단체 관리 강화, △사업 브랜딩 강화를 위한 사업별 BI 활용 확대 등이.

이 중 '꿈다락 문화학교'는 기존 육상형·심화형에서 일반형·예술강사형으로 개편했다. 특히, 예술강사형은 학교예술강사의 처우개선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참여 인력을 모두 학교예술강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가 참여 인력으로 포함될 경우 단체당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전문가 현장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단체와 프로그램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별 브랜드(BI)를 개발하고 확대해 도민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도민이 일상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내 역량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과 교육문화팀(063-230-7463, 7464, 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정정희)는 2025년도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전북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목은 △실버케어전문가 양성교육 △AI·SW 미래인재 양성과정(고부가가치) △반려동물 소품&푸드제조과정 △디지털마케팅창업(창업) △경리사무실무자과정(기업맞춤) △디지털 홍보마케터 등 6개다.

특히 2025년도에는 참여촉진수당(교육생 대상 80%이상 출석시 1개월(60시간 기준)에 10만원)을 신설하여 교육 및 훈련 참여확대, 경제적 지원 제공, 구직 및 재취업 확률을 높일 예정이다.

기타 교육참여 혜택으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인턴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전담 취업상담사를 통한 One-Stop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김재훈 기자

남원 춘향제, 청사초롱 불빛 밝혀

관광지 주변·요천변 따라 야간경관 조성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95회 춘향제를 30여일 앞두고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청사초롱 불빛을 밝혔다. 청사초롱은 광한루를 포함한 관광지 주변 뿐만 아니라 요천변을 따라 설치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사초롱의 빛은 단순한 장식이나 아니라 춘향의 사랑과 신념을 담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춘향의 목소리가 시대를 넘어 세상에 울려 퍼지듯이 청사초롱의 은은한 불빛 또한 밤하늘을 수놓으며 사랑과 희망의 의미를 전할 것이다.

설치된 청사초롱은 일몰부터 오후 11시까지 점등되며, 축제 기간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춘향제 관계자는 "청사초롱은 춘향제의



전통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밤에는 행사와 공연을 즐기고, 밤에는 은은한 불빛 속에서 특별한 감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춘향제를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널리 알리고,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청자박물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청자 전문 도예 인력 양성 기반 마련 협력

부안청자박물관(군수 권익현)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유산대 학장 최성재)는 지난 28일 청자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도예가 유치해 청자 전문 도예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최성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대 학장, 이정용 전통미술공예과 학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민족자존 문화창달'을 건학이념으로 2000년 개교했으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대학이다.

또 국내 유일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립대학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협력, 지역 청자 공예 문화지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 교류 등 상호 간의 공동 발전과 지역자원 청자를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전국 최초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회 삼강 도자 작품 공모전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휘된 실용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방문 현장 설명회와



오는 8월에는 부안상감청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심화 전수 프로그램에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물레성형 및 삼강기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자 문화 상생협력과 민족의 자존심인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도자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한 부안 지역 도자산업 상생발전과 삼강청자의 발생지 부안청자문화를 MZ세대 도예가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조성 예정인 도예가창작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도예 작가 유치와 문화 도자 인력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도자 관련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10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